여자 한복에서의 색 고정관념화
-자극물의 연령, 직업, 남편의 직업, 이미지에 대한 질적 연구-

이 혜 숙 · 김 재 숙
충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사람들은 거의 정보가 없을 경우에라도 타인에 관해서 매우 일관된 인상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과 집단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데는 지각자 자신의 태도, 대인지각, 고정관념, 사회적 하위 집단에의 소속 여부 등이 깊이 관련된다.

특히 고정관념은 지각자가 타인을 범주화하여 인지적 구조에 적용하려고 사용하는 '머리에 떠오르는 그림' 또는 정신적 이미지(Kaiser, 1990, 255)로 지각자는 타인의 인상형성시 의복형태, 색, 무늬 등 여러 요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과정하거나 부정확한 평가에 이르도록 하기도 하지만 빠른 시간내에 정보를 분류하고 범주화하여 쉽게 타인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해 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정관념이론과 색이론을 바탕으로 한복의 색에 따라 착용자의 연령과 직업, 남편의 직업, 이미지에 대한 고정관념을 추출하고자 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를 하였다. 양적 연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질적 연구는 맥락내에서의 관찰과 그들 경험으로부터의 귀반에 의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질적 연구를 행하여 양적 연구로는 측정할 수 없는 지각자들의 심도있는 응답을 얻어낼 수 있으므로 연구자가 조작하려는 것보다 지각자가 실제로 느끼는 것을 측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자료수집은 자극물과 자유응답으로 구성된 설문지법에 의하였다. 피험자는 대전 충남북 지역의 남녀 대학생 총 1138명을 편의 표집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은 색을 달리한 여성 한복 착용자로서 상하동색(노랑, 빨강, 녹색, 남색, 회색), 상하배색(노랑, 빨강, 녹색, 남색의 상하조합)의 총 17개 자극물을 CAD로 제작하였으며 자유응답 문항은 착용자의 연령과 직업, 남편의 직업, 착용자의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구성되었다. 자료분석은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복색에 따른 착용자의 연령지각은 상하동색의 경우 빨강이 가장 어리게 지각되었고 회색이 가장 나이들어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으며 노랑, 녹색, 남색은 빨강과 회색의 중간정도로 지각되었다. 특히 회색 한복착용자는 20세 이하로 지각된 것이 5%에 불과하여 다른 색과는 큰 대조를 보였으며 빨강 한복착용자는 모두 40세 이하로 지각되었다.

상하배색의 경우 난색계열(노랑, 빨강)의 조합이 어리게 지각되었고 한색계열(녹색, 남색)의 조합이 나이들어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빨강과 조합된 한복 착용자는 다른 색과 조합된 한복 착용자보다 어리게 지각되었다.

이와 같이 상하동색에서는 빨강 한복착용자가 노랑 한복착용자보다, 상하배색에서는 빨강과 조합된 한복착용자가 다른 색과 조합된 것에 비해 어리게 지각된 것은 주관적인 측면에서 빨강색 복식은 주로 젊은 사람들이 착용하며 빨강은 젊어 보인다는 고정관념이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2. 한복색에 따른 착용자의 직업 지각은 주부, 전문직, 서비스직에 종사할 것으로 지각되었다. 상하동색의 경우 노랑, 빨강, 남색의 한복착용자는 전문직, 회색, 녹색의 한복착용자는 주부일 것으로 지각되었다. 빨강은 서비스직의 비율이 높고 주부의 비율이 낮아졌다. 녹색은 다른 색에 비해 전문직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색은 다른 색과는 달리 문화예능계에 종사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회색은 다른 색에 비해 주부일 것이라는 응답이 월등히 많았다.

결과적으로 지각자가 착용자의 연령을 지각할 때 의복색에 의한 고정관념으로 색에 따라 같은 자극물에서도 연령을 다르게 지각하였으며 착용자의 직업을 지각할 때 한복이라는 의복형태와 색에 의해 직업을 다르게 지각하므로 사람들은 타인을 지각할 때 고정관념에 의해 쉽게 판단하고 범주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